영어어문교육 *제 27권* 2호 2021년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1.27.2.137

브이로그(Vlogs)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EFL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 및 의사소통의지에 미치는 영향*

진승희
(이화여자대학교)

Jin, Seunghee (2021). The effects of using Vlogs for language learning on EFL learners' communicative self-confidence and willingness to communicat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7*(2), 137-155.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using Vlogging as a speaking activity on EFL university students' development of 1) communicative self-confidence with covering anxiety and self-perceived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2) willingness to communicate(WTC). A Vlog or a video log is a form of a blog where all of the content is in a video format. Vlogging refers to the process of creating a Vlog by recording a person's life, thoughts, experiences, or interests. Throughout a semester, an experimental group of 25 students engaged in a Vlogging activity, while a control group of 26 students followed the regular curriculum for the university course of English communication. To collect data, a series of questionnaires was carried out for both groups. Results showed that both groups had high anxiety, low self-perceived communicative competence, low self-confidence, and low WTC before participating in this study. However, the result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with the Vlogging learning group feeling less anxious, more competent in their English abilities, more confident, and more willing to communicate in English, while little enhancement was found in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suggested that Vlogging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EFL learners' self-confidence, anxiety,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WTC.

[Willingness to communicate(WTC)/anxiety/self-perceived communicative competence/communicative self-confidence/Vlogs, 의사소통의지/불안감/자각의사소통능력/의사소통자신감/브이로그]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923)

I. 서론

제2언어 혹은 외국어 습득에서 심리적 요소인 불안감, 자각능력, 자신감과 의사소통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WTC))등은 성공적인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MacIntyre, 1994; MacIntyre & Gardner, 1994). 의사소통불안감(communication anxiety)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시 느끼는 두려움으로 불안감이 강하게 나타나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상황을 회피하거나 발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Horwitz, Horwitz & Cope, 1986). 자각의사소통능력(Self-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e)이란 학습자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능력(Bandura, 1989)으로 의사소통 시행 시 학습자 자신의 실제 의사소통능력보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는 자각능력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McCroskey & Richmond, 1991). 특히 자각 능력은 실제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는 데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WTC에 큰 영향을 끼친다(이해련 & 김우형, 2006). WTC는 주어진 의사소통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MacIntyre, Baker, Clément, & Conrod, 2001)으로 의사소통행동인 발화의 바로 전 단계이며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의적 요인이다(MacIntyre, Dörnyei, Clément, & Noels, 1998).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인 불안감, 자각의사소통능력, 자신감, WTC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는지의 여부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외국어 혹은 제2언어 습득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MacIntyre et al., 2001; MacIntyre et al., 1998).

국내 WTC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불안감, 학습동기, 자각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정의적 요인들과 WTC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대부분으로 주제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국인 학습자들의 WTC를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안에 대해 찾고자 한 현장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영어 사용 및 노출도가 낮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학습한 한국 학습자들은 실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과 긴장감을 크게 느끼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말하기를 어려워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조민희 & 표경현, 2020). 실제로 많은 한국 학습자들은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이유로 실제 대화 상황에서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대화를 기피하고 의사소통상황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며 자신의 영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어 학습에 작용하는 정서적 요인에 주목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의사소통상황에서 가지는 불안감, 부담감 등의 부정적 심리적 영향을 줄이고 의사소통자신감과 WTC를 향상시켜 의사소통능력 발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s)라고 불리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를 활용한 학습 방법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허선영 & 손승희, 2020). 이에 본 연

구는 SNS와 영상에 친숙한 젊은 세대에게 요즘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브이로그(Vlog) SNS 활동을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브이로그란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동영상 형식으로 기록되는 블로그이다. 자신의 일상 혹은 관심사 등을 자유롭게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SNS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브이로그를 영어 수업 활동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 혹은 관심사 등의 자유로운 주제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급우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수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한국인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과 WTC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수업 효과를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II. 문헌 연구

1. 의사소통의지(WTC), 의사소통불안감, 자각의사소통능력

WTC란 "제2언어 사용시 특정 시간에 특정 사람과의 대화 상황에 참여할 지에 대한 개개인의 준비상태(readiness)"로 정의된다(MacIntyre et al., 1998, p. 547). 이는 대화상황에서 개개인이 선택권이 있을 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MacIntyre, Baker, Clément & Donovan, 2003). WTC는 영어 발화가 나타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L2 의사소통의 양과 빈도수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 성공적인 L2 습득에 중요한 요인이다(MacIntyre & Charos, 1996; MacIntyre et al., 1998). 실제로 WTC가 높은 학습자들은 언어 실력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MacIntyre et al., 2001; MacIntyre et al., 1998; Yashima, 2002). WTC와 상관관계가 깊은 두 요소는 1) 불안감과 2) 자각능력이다(Baker & MacIntyre, 2000; Clément, Baker, & MacIntyre, 2003; MacIntyre et al., 2001; MacIntyre & Charos, 1996; MacIntyre & Gardner, 1994).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는 학습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WTC가 낮고 따라서 L2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cIntyre, Babin, & Clément, 1999). 또한 자각능력은 실제 언어 실력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가 인지하는 언어 실력을 의미한다(MacIntyre, 1994). 실제로 영어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의 영어실력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WTC가 낮다(McCroskey & Richmond, 1982). 이처럼 불안감, 자각능력, WTC의 세 요인은 서로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학습자의 의사소통자신감 상태(State communicative self-confidence)는 바로 WTC와 연관성 깊은 두 요소인 의사소통불안감과 자각의사소통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Reinders & Wattana, 2014). 의사소통자신감이 높다는 것은 의사소통불안감이 낮고 자각의사소통능력이 충분하거나 혹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Reinders &

Wattana, 2014). 따라서 학습자의 의사소통자신감이 높으면 WTC가 높게 나타나고 성공적인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국내 영어교육에서도 학습자의 WTC가 영어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정의적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EFL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할 기회가 현저히 적고 수업시간의 의사소통 기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공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WT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WTC 관련 국내 연구 문헌 조사 결과, 주로 불안감, 학습동기, 자각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정의적 요인들과 WTC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나타났다(예. 곽경섭, 2018; 김영숙 & 이지연, 2008; 배태일, 2015; 이해련 & 김우형, 2006). 이외에도 WTC와 실제 영어성취도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남정미, 2011)과 WTC와 의사소통빈도수와 관계를 밝힌 연구(김현진, 2005)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습자들의 WTC를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 찾고자 한 현장 연구를 실시한 연구는 조민희와 표경현(2020)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민희와 표경현(2020)은 플립러닝 영어수업을 진행하였고 연구결과, 플립러닝 수업 방식은 학습자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강좌를 듣고 수업에 참여하므로 미리 수업준비를 할 수 있어 학습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WTC와 언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렇듯 국내 연구에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영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WTC의 향상과 함께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2. SNS 활용 영어교육

SNS 매체는 공유 플랫폼으로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접속이 되는 환경만 있으면 학습 환경 구현이 쉬워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신재한 & 서희석, 2012). 영어교육에 SNS의 활용은 교육적 가능성과 이점이 크다. 윤유진(2019)은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생생한 영어를 접할 수 있고 실제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또한 매우 흥미롭고 지속 가능한 학습방법으로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세경(2011)은 SNS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 1) 목표어 노출 증가, 2) 목표어에 대한 흥미 증가, 3) 편안하고 유연한 학습 환경 및 의사소통 기회 제공, 4)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인식(multicultural awareness)이 증대할 수 있음을 들었다. 따라서 SNS 기반 영어교육은 요즘에 이르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살펴본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영어 글쓰기 수업에 SNS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최근 연구로 김병선(2020)은 유튜브에 댓글 달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문은주와 김재경(2011)

은 블로깅을 활용한 영어 글쓰기 수업을 실시하였고 웹 기반 블로깅과 모바일 블로깅 학습 환경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모바일 기반 과정 중심 영어 쓰기가 기존의 웹 기반 블로깅 쓰기 학습보다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 능력 발달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박혜정과 김지영(2011)은 트위터를 활용한 영어 쓰기 학습 연구를 실시하였다. 영어 글쓰기 학습 외에도 읽기, 어휘, 문법, 말하기 학습 등에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미양(2017)의 연구는 영어 읽기 수업에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수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수업을 설계 시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진승희(2018)는 어휘 학습에 모바일 앱과 페이스북을 통한 모바일 협력 학습을 실시하여 이러한 SNS를 활용한 학습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의 어휘 학습보다 학습자들의 어휘 실력 발달에 효과적임을 나타냈다. 허선영과 손승희(2020)는 영어 말하기 활동에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였고 연구결과, 카카오톡을 통한 영어 말하기 수업 활동이 학습자들의 토익 스피킹 실력 발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대학영어 문법 수업에 스마트폰 기반 블렌디드 학습을 진행하여 효과성을 밝힌 연구(Jin, 2014)도 있었다. 이처럼 SNS 기반 영어 교육은 요즘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이며 SNS 매체의 활용이 영어 학습에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교육적 효과가 높음이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브이로그 또한 SNS 활동으로 최근 젊은 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브이로그 활동으로 자신의 일상 혹은 관심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들의 영상 콘텐츠를 소셜 플랫폼에 공유하고 있다. 기존의 블로그에서도 동영상 콘텐츠가 나타나긴 했지만 게시물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주 콘텐츠였고 동영상은 선택적이고 부차적인 콘텐츠로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주인 브이로그와 다르다. 브이로그가 이처럼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SNS에 친숙하고 동영상으로 소통하는 Z세대의 특성(노승욱 & 나건욱, 2019)과 소셜미디어의 영상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인 Z세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SNS 세대이다(노승욱, 나건욱, 2019). 또한 Z세대는 글과 사진으로 이루어진 정적인 게시글보다 역동적이고 현장감이 넘치는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며 주로 동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매체들은 모두 영상 소통 기능(예. 인스타그램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앞다투어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SNS 활동에 익숙하고 영상으로 소통하는 Z세대에게 자신의 관심사 혹은 일상 등의 다양한 주제를 영상으로 공유하여 소통하는 브이로그는 매우 인기가 많은 SNS 활동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브이로그는 최근에 인기가 급증한 SNS 활동으로 아직까지 브이로그를 통해 영어 교육 관련 수업 방안이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고 인기있으며 영상 기반 SNS 활동인 브이로그를 활용해 영어 학습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문헌에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WTC 및 의사소통자신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안에 대한 현장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인 학습자

들은 대체로 영어 의사소통상황에 불안감이 높고 자신감 및 WTC가 낮게 나타나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문제점으로 많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이 성공적으로 발달하기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브이로그를 활용한 수업을 제시하고 이러한 학습방법이 한국 학습자들의 불안감 및 자각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의사소통자신감과 WTC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학습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의사소통불안감, 자각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학습이 학습자들의 WT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한국 대학의 교양 영어 수업(English communication)에서 실시되었다. 이 수업은 대학 신입생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양 수업이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일주일에 3시간, 15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업은 모두 본 연구자가 직접 교수자로 담당하는 두 분반으로 총 51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수업은 모두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며 학생들은 그룹 토론, 질문 등의 모든 수업 활동에 영어로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 학생들은 19-25살의 연령으로 해외에서 산 경험이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설문 조사, 시험 등에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분반 중 한 분반은 브이로그를 활용하여 영어 말하기 활동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한 반은 전통적인 수업 형식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을 공통된 강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였다. 브이로그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한 분반은 실험집단으로 총 25명(남학생 9명, 여학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수업 형식을 따른 반은 통제집단으로 총 26명(남학생 11명, 여학생 15명)으로 이루어졌다. 두 분반 모두 공통 교재를 사용하였고 같은 강의 내용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 첫 시간에 진행된 옥스포드 영어 평가 시험(Oxford placement test)의 문법 부분의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레벨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중급 단계(intermediate level)로 나타났다.

2. 연구 설계

1)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활동 수업(실험 집단)

본 연구의 실험 집단의 수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같이 주어진 교재를 기반으로 매주 단원 별 다양한 학습 주제를 학습하고 영어 실력향상을 위한 수업 활동을 하게 된다. 실험 집단은 말하기 실력향상을 위한 수업 활동으로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활동이 실시된다. 매주 1개씩 자신의 일상이나 관심사 등 자신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를 자유롭게 택하여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 일기, 즉 브이로그를 작성하는 것이 본 연구 실험 집단의 영어 말하기 활동이다. 브이로그 영상에는 영어 말하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며 영상 길이는 자유이다(권장은 3-5분 내외). 학생들은 매주 자신들이 만든 브이로그를 본 수업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의 수업 게시판에 게시하여 급우들과 공유하게 된다. 게시된 브이로그 영상들을 통해 급우들과 서로 댓글을 달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은 짝 혹은 모둠활동으로 전 주에 제작한 자신들의 브이로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말하기 활동(경험, 장단점, 노하우 혹은 친구들의 영상에 대한 감상평 혹은 피드백 제시)을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게시한 브이로그에 대해 전반적인 피드백을 주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교수자는 매주 학생들의 개개인 별 브이로그 영상들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에 나타난 문법, 어휘, 발음과 관련된 오류 수정 피드백(corrective feedback)을 댓글로 제시하였다.

본 수업의 첫 주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연구인 브이로그 활용 수업 활동 및 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자세히 실시하였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1) 브이로그 개념 설명과 예시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SNS 활동인 브이로그의 개념 설명과 예시를 상세히 제시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참여하게 될 브이로그 말하기 활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튜브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기있는 여러 브이로거(Vloggers)들의 영상들을 예시로 소개하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본 연구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였다. 다음으로 2) 브이로그 활용을 위한 영상제작 및 편집 방법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스마트폰과 (2)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예. 곰믹스, 다빈치 리졸브, 뱁믹스, 샷컷 등)이다. 학생들은 브이로그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기능으로 원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들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영상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간단히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곰믹스란 무료 동영상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시연을 보여 편집 초보도 어려움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세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브이로그를 제작하여 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그 다음은 3) 브이로그 활용 수업 활동 및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될 브이

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1주에 1개씩 총 10개의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여 밴드 수업 게시판에 급우들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 수업 평가 방법이다. 본 연구의 브이로그 활용 수업 활동 및 과제는 총 성적의 30%를 차지함을 학생들에게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 연구의 브이로그 활용 수업 활동 및 과제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만든 브이로그 게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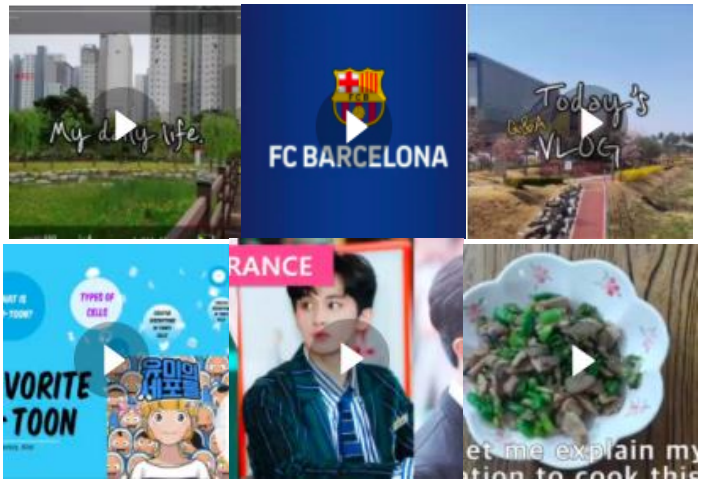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실험 집단 학생들은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 활동으로 자신이 편하고 친숙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급우들과 공유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브이로그 영상의 주제로는 매일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가장 많았고 취미생활을 보여주거나 좋아하는 영화, 스타, 축구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이 추천하는 요리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다양하였다.

그림 2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의 브이로그 내용



그림 2는 본 연구의 실험 집단에 참여한 한 학생이 자신의 일상을 영어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브이로그이다. 이 학생은 자신의 일상을 영어로 소개하며 집에서 자

신이 좋아하는 레시피로 쿠키를 굽는 모습을 담았다. 또한 친구와 요즘 유행하는 음식인 규카츠로 외식을 하고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학생은 자신의 브이로그 영상에 추가적으로 영어 자막을 입혀 급우들이 자신의 영상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렇듯 본 연구의 실험 집단 학생들은 매주 브이로그를 제작하며 영어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전통적인 방식의 영어 수업(통제집단)

본 연구의 통제집단은 기존 필수 교양 영어 과목 수업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통제집단은 앞서 제시한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학습내용 및 수업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은 1) 어휘, 2) 대화(conversation), 3) 언어 연습(language practice), 4) 발음, 5) 듣기, 6) 읽기, 7) 말하기로 구성된 교재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말하기 학습 활동에서 실험집단과 차이가 있다. 통제집단은 매주 수업 시간에 단원 별 교재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을 실시한다. 통제집단의 말하기 활동은 짝 활동(pair work) 혹은 모둠 활동(group work)으로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시된 질문에 답하기(예. What did you do on vacation?, How often do you watch a movie?, What's important to you when you meet someone? 등), 2) 게임(예. Find someone who…, A shopping game, The location game 등), 3) 퀴즈, 4) 인터뷰 등이 통제집단의 말하기 활동으로 실시되었다. 교수자는 짝 활동 혹은 모둠 활동 후 전체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이 영어로 자신들의 대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학생들의 발음, 어휘, 문법 등의 오류에 피드백을 주었다.

3. 연구 도구

1) 의사소통자신감 검사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 연구참여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영역인 (1) 의사소통불안감과 (2) 자각의사소통능력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자신감 설문지를 통해 사전 ·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는 수업 첫 주에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대한 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사후 설문조사는 수업 14주차에 실시되었다. 의사소통자신감 관련 설문지 및 설문 문항은 Reinders와 Wattana(2014)가 EFL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 및 WTC의 발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를 참고하여 본 논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자신감 설문지는 의사소통불안감 관련 5문항, 자각의사소통능력 관련 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설문조사는 모든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않다, 2 = 그렇지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

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
의사소통자신감 설문 문항 구성

영역	세부항목	문항 번호
의사소통자신감	의사소통불안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각의사소통능력	6번, 7번, 8번, 9번, 10번

2) WTC 검사

본 수업을 통해 두 연구 집단 연구참여자들의 WTC가 향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WTC 관련 사전 ·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 첫 주에 사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수업 14주차에 사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WTC의 향상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내용은 MacIntyre 외 3인(2001)과 Reinders와 Wattana(2014)의 WTC 관련 연구에 나타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모두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설문지는 부록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설문 내용은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주로 경험하게 될 의사소통상황 혹은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 및 과제에서 어느 정도 영어로 발화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WTC를 살펴본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1 = 전혀 할 의향이 없다, 2 = 별로 할 의향이 없다, 3 = 보통이다, 4 = 다소 할 의향이 있다, 5 = 매우 할 의향이 있다' 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크게 1) 의사소통자신감, 2) WTC의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자신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전 · 사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우선 통계분석을 하기에 앞서 의사소통불안감 설문 응답 결과를 모두 역코딩(reverse coding)을 실시하여 나타내었다. 불안감 항목은 높은 점수일 수록 부정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일 수록 긍정적인 답변인 다른 설문 항목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자신감 관련 두 집단간의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실험 집단의 의사소통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진단하기 위해 실험 집단 사전 · 사후 검사 결과를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자신감의 두 요인 별(의사소

통불안감과 자각의사소통능력) 사전 · 사후 검사 결과를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여 그 의미를 상세히 해석하였다.

두번째로 WTC 관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 · 사후 검사에서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 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 결과를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본 연구 실험이 연구참여자들의WTC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집단 WTC 사전 ·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설문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해 본 연구 실험이 실험 집단에 끼친 영향을 설문항목별로 자세히 분석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사소통자신감과 WTC 관련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통해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자신감 관련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문지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은 각각 .85, .90이고 실험 집단 사전·사후 설문지는 각각 .83, .81로 나타나 설문지의 신뢰도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WTC 관련 설문지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은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문 각각 .92, .91로 실험 집단 사전·사후 설문 각각 .90, .90로 모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브이로그 활용 수업의 의사소통자신감 효과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자신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의사소통자신감 사전 검사 결과

표 2
집단간 의사소통자신감 사전 검사 결과

구분	집단	N	M	SD	*t*	*df*	*p*
사전 검사	실험집단	25	2.43	.43	.37	49	.69
	통제집단	26	2.48	.45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이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의사소통자신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험 집단은 평균 2.43, 표준편차 .43이고 통제집단은 평균 2.48, 표준편차 .45이며 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t(49) = .37$, $p = .69$) 따라서.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 두 집단의 의사소통자신감은 차이가 없고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자신감 사후 검사 결과

표 3
집단간 의사소통자신감 사후 검사 결과

구분	집단	N	M	SD	*t*	*df*	*p*
사후 검사	실험집단	25	3.28	.45	-6.02***	49	.000
	통제집단	26	2.46	.51			

***$p < .001$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한 학기 동안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을 한 실험집단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 통제집단 간에 의사소통자신감 관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사후 검사 결과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서 볼 수 있다. 실험 집단의 평균점수(M = 3.28, SD = .45)는 통제집단의 평균점수(M = 2.46, SD = .51) 보다 .82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점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9) = -6.02$, ***$p < .001$). 이를 통해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을 한 수업이 학생들의 의사소통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실험 집단 의사소통자신감 사전 · 사후 검사 결과 비교

표 4
실험 집단 의사소통자신감 사전 · 사후 검사 결과

평가	설문	N	M	SD	*t*	*df*	*p*
의사소통자신감	사전	25	2.43	.43	-12.00***	24	.000
	사후	25	3.28	.45			

***$p < .001$

위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이 실험 집단의 의사소통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 · 사후 검사 결과를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사후 검사의 평균은 3.28로 실험 전 사전 검사 평균점수 2.43 보다 .85 의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24) = -12.00$, ***$p < .00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이었던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 활동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4) 실험 집단 의사소통자신감 요인 별 사전 · 사후 검사 결과 비교

표 5
실험 집단 의사소통자신감 요인 별 사전 · 사후 검사 결과

요인	설문	N	M	SD	*t*	*df*	*p*
의사소통불안감	사전	25	2.02	.47	-12.21***	24	.000
	사후	25	3.03	.61			
자각의사소통능력	사전	25	2.84	.62	-5.65***	24	.000
	사후	25	3.53	.63			

$^{***}p < .001$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험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의사소통자신감의 두 가지 요인인 1) 의사소통불안감, 2) 자각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각각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 의사소통불안감 사전 검사의 평균은 2.02, 표준편차 .47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 전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사후 검사의 평균은 3.03, 표준편차 .61로 평균점수는 실험 후 1.01 차이로 증가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24) = -12.21, $^{***}p < .001$). 이는 브이로그를 활용한 말하기 활동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자각의사소통능력 사전 검사의 평균은 2.84, 표준편차 .62이고 사후 검사 평균은 3.53, 표준편차 .63으로 평균점수 .69점 향상되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4) = -5.65, $^{***}p < .001$). 이러한 결과는 실험 전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브이로그를 활용한 수업 후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에 대해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등 자각의사소통능력이 발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실험 집단 의사소통자신감을 두 가지 요인 별로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 전 학습자들은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고 영어로만 의사소통해야 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높고 긴장하고 있어 의사소통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자각의사소통능력이 낮게 나타나 의사소통자신감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영어 의사소통상황에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 의사소통 자신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Reinders & Wattana,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브이로그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후 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의사소통불안감이 개선되고 자각의사소통능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의사소통자신감이 향상된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활동을 실시한 수업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의 각 요인인 의사소통불안감 해소와

자각의사소통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의사소통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2. 브이로그 활용 수업의 WTC 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브이로그를 활용한 말하기 학습활동이 학습자들의 WT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WTC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WTC 사전 검사 결과

표 6
집단간 WTC 사전 검사 결과

구분	집단	N	M	SD	*t*	*df*	*p*
사전 검사	실험집단	25	2.66	.72	-4.63	49	.65
	통제집단	26	2.56	.73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WTC 관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를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실험 집단은 평균 2.66, 표준편차 .72이고 통제집단은 평균 2.56, 표준편차 .73이며 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t(49) = -4.63$, $p = .65$) 따라서.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 두 집단의 WTC는 차이가 없고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 실험 전 두 집단의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별로 할 의향이 없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발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 상태, WTC가 낮게 나타났다.

2) WTC 사후 검사 결과

표 7
집단간 WTC 사후 검사 결과

구분	집단	N	M	SD	*t*	*df*	*p*
사후 검사	실험집단	25	3.81	.65	-6.33***	49	.000
	통제집단	26	2.61	.71			

***$p < .001$

다음은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을 한 실험집단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간에 실험 후 WTC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의 사후 검사 결과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는 표 7에서 볼 수 있다. 실험 집단의 평균점수(M = 3.81, SD = .65)는 통제집단의 평균점수(M = 2.61, SD = .71) 보다 1.2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점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9) = -6.33$, $^{***}p < .001$). 이러한 결과는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을 한 실험 집단의 수업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통제집단의 수업보다 학생들의 WTC를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냈다.

3) 실험 집단 WTC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표 8
실험 집단 WTC 사전 · 사후 검사결과

평가	구분	N	M	SD	*t*	*df*	*p*
WTC	사전 검사	25	2.66	.72	-12.35***	24	.000
	사후 검사	25	3.81	.65			

$^{***}p < .001$

본 연구에서 한 학기 동안 실시한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활동이 실험 집단 학생들의 WTC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WTC 관련 사전 · 사후 검사 결과를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통계분석 결과는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다. WTC 관련 사후 설문조사의 평균은 3.81으로 사전 설문조사의 평균값 2.66보다 1.15 차이로 높게 향상되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24) = -12.35$, $^{***}p < .00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인 브이로그를 활용한 말하기 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WTC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실험 전 자신의 WTC를 낮게 평가했던 학생들이 브이로그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 후 WTC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시도한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방안은 학습자들이 영어 의사소통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낮춰주고, 자각의사소통능력을 높여 의사소통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정의적 요인들과 관련 깊은 WTC도 성공적으로 발달하였음을 나타냈다. 또한 브이로그를 활용한 수업은 전통적인 교실수업보다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과 WTC 발달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브이로그 말하기 활동을 통해 매주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영어로 영상을 찍어 급우들과 소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 주제가 자신에게 의미있고 흥미로웠으며 주도적으로 말하기 활동에 임할 수 있었고 또한 말하기 전 충분히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어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덜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브이로그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은 기존의 한국 학습

자들이 영어 말하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한 정서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 말하기 학습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자신감과 WTC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한국 대학의 교양 영어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자신감 부족으로 WTC가 낮게 나타나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고 그로 인해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는 점이 개선될 부분으로 많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인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수업이 학습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의사소통자신감, WTC의 향상을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인 의사소통불안감, 자각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자신감, WTC 등이 실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앞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정서적 요인에 주목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의사소통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자각의사소통능력을 높여 의사소통자신감을 발달시키고 또한 WTC의 향상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 수업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수업 방안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되기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 학습자들이 영어 의사소통상황에 두려움 없이 좀 더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춰 자신의 영어 실력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브이로그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 이외에 실제로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경섭. (2018). 한국 EFL 대학생의 외국어불안감 및 자각의사소통능력과 WTC간의 관련성 연구. *영어교과교육*, *17*(1), 65-84.

김병선. (2020). 대학생들의 영어 쓰기 경험에 관한 연구: 유튜브 댓글 작성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25*(3), 187-207.

김영숙, 이지연. (2008). 한국 대학생의 영어학습동기, 의사소통의지와 영어전용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14*(4), 223-245.

김현진. (2005). 언어 불안감, 자각능력, 의사소통의사 및 동기와 제2언어 의사소통빈도의 관계: 한국 EFL 상황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12*(1), 161-184.

남정미. (2011). 원어민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와 영어성적과의 관계. *영어어문교육*, *17*(2), 139-160.

노승욱, 나건욱.(2019,06,14). Z세대가 온다: 밀레니얼 세대와 닮은 듯 다른 신인류 스마트폰 쥐고 자란 '포노 사피엔스'. *매일경제*. Retrieved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17639/

문은주, 김재경. (2011). 웹 기반 및 모바일 블로깅을 활용한 웹 환경에서의 쓰기 효과.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4*(3), 225-243.

박혜정, 김지영. (2011). 트위터를 활용한 영어쓰기 학습이 대학생들의 영어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4*(3), 245-264.

배태일. (2015). 영어 WT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자신감, 성취목적 지향성, 교실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영어교과교육*, *14*(4), 95-114.

신재한, 서희석. (2012). *SNS 활용 수업 스마트하게 하기*. 서울: 교육과학사.

윤유진. (2019). 대학 교양 영어 교육에서 SNS를 활용한 플립 러닝의 효과. *외국어교육*, *26*(2), 49-71.

이해련, 김우형. (2006). 정의적 요인과 구두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 불안감, 학습동기와 의사소통의지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2*(1), 245-267.

조민희, 표경현. (2020). 플립러닝 영어수업에서 언어 불안 및 의사소통의지의 변화. *언어학연구*, *55*(4), 225-248.

조세경. (2011).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와 외국어 학습.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4*(3), 315-334.

진승희. (201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플래시카드 어휘 학습 및 SNS 기반 모바일 협력학습이 영어 학습자의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1*(4), 298-322.

최미양. (2017). 학생들의 능동적 수업참여를 위한 ICT 활용 연구: 대학 영어 읽기 수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419-428.

허선영, 손승희. (2020). 폐쇄형 SNS를 활용한 토익 말하기 활동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923-937.

Baker, S., & MacIntyre, P. (2000). The role of gender and immersion in communication and second language orientations. *Language Learning*, *50*(2), 311–341.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Clément, R., Baker, S., & MacIntyre, P. (2003).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The effects of context, norms, and vitalit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2*(2), 190–209.

Horwitz, E., Horwitz, M.,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2), 125–132.

Jin, S. H. (2014). Implementation of smartphone-based blended learning in an EFL undergraduate grammar course.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7*(4), 11-37.

MacIntyre, P. (1994). Variables underly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A causal 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2), 135–142.

MacIntyre, P., Babin, P., & Clément, R. (1999).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tecedents & consequences. *Communication Quarterly, 47*(2), 215–229.

MacIntyre, P., Baker, S., Clément, R., & Conrod, S. (2001). Willingness to communicate, social support, and language-learning orientations of immersion studen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3), 369–388.

MacIntyre, P., Baker, S., Clément, R., & Donovan, L. (2003). Talking in order to learn: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intensive program.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9*(4), 589–607.

MacIntyre, P., & Charos, C. (1996). Personality, attitudes, and affect as predictors of second language communic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5(*1), 3–26.

MacIntyre, P., Dörnyei, Z., Clément, R., & Noels, K. (1998). Conceptualiz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L2: A situational model of L2 confidence and affiliatio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2*(4), 545–562.

MacIntyre, P., & Gardner, R. (1994). The subtle effects of language anxiety on cognitive processing in the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44*(2), 283–305.

McCroskey, J. C., & Richmond, V. P. (1982).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shyness: Conceptual and operational distinction. *Central States Speech Journal, 33*(4), 458–468.

McCroskey, J. C., & Richmond, V. P. (1991). Willingness to communicate: A cognitive view, In M. Both-Butterfield (Ed.), *Communication, cognition and anxiety* (pp. 19-37). Newbury Park, CA: Sage.

Reinders, H., & Wattana, S. (2014). Can I say something? The effects of digital game play 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8*(2), 101–123.

Yashima, T. (2002).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The Japanese EFL contex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6*(1), 54–66.

부록 1
의사소통자신감 설문지

1. 나는 영어를 말할 때 실수하는 것이 두렵다.
2. 나는 친구들이 하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까 두렵다.
3. 나는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긴장된다.
4. 나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할까 두렵다.
5. 나는 교수자가 나에게 질문 시 대답을 잘 하지 못할까 두렵다.

6. 나는 수업시간에 내가 하고싶은 말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
7. 나는 수업시간에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8. 나는 수업시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어휘 실력을 갖추고 있다.
9. 나는 수업 토론 시 긴장하지 않고 영어를 말할 수 있다.
10. 나는 내가 수업참여를 위한 어느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부록 2
WTC 설문지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생각과 의견을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2. 나는 수업 토론 시간에 내 의견을 영어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3. 나는 과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영어로 교수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4. 나에게 친숙한 주제에 대한 토의 시 내 의견을 영어로 잘 전달할 수 있다.
5. 내가 미리 주제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수업 토론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예시언어(Example in): Korea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진승희(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미학융합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eung2jin@ewha.ac.kr

Received: April 25, 2021
Reviewed: May 28,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4, 2021